

도심 텃밭에서 일구는 수확의 기쁨

군산, 도시농업 녹색공간
조성사업 확대 추진호응
올해 6개소 신규 확충

군산시가 도심 자투리땅을 도시텃밭으로 조성하며 시민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농업기술센터는 도시에 시민들의 심리치료와 정서 안정 지원을 위해 도시농업 녹색공간(텃밭) 조성사업을 확대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경로당, 복지시설, 공공주택 등을 대상으로 도시텃밭 22개소를 조성하고 올해 6개소를 추가 조성했다.

을 대상으로 도시텃밭 22개소를 조성하고 올해 6개소를 추가 조성했다. 이에 따라 보다 많은 시민들이 도심 속에서 농업을 체험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했다.

도시농업 녹색공간(텃밭) 조성사업은 시민들이 도시농업에 참여해 정서적 안정을 누리고 수확의 기쁨을 함께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지친 일상에서 쌓인 피로감을 덜어내고 삶에 활력을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올해 새롭게 조성된 텃밭은 자투리 공간 및 유휴부지를 소유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 4개소(모드니 직업적응 훈련센터, 아이소리 지역아동센터, 구세군 군산 목양원, 엘림통합복지센터) ▲공공주거시설 1개소(나운주공4차아파트) ▲어린이집 1개소(성모어린이집)다.

해당 텃밭에는 시에서 육성한 도시농업관리사를 투입해 참여 단체와 함께 공동체 텃밭을 조성하고,



군산시는 지난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경로당, 복지시설, 공공주택 등을 대상으로 도시텃밭 22개소를 조성하고 올해 6개소를 추가 조성했다.

모종 심기부터 마요네즈를 활용한 친환경샐러드 만들기, 수확한 작물을 활용한 팜파티 등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김미정 농촌지원과장은 “도시민들이 도심 속 텃밭 가꾸기를 통해 마음을 치유하고 더불어 농촌에 대

한 이해와 관심을 높일 수 있길 바란다”며 “녹색공간 조성과 건강한 여가활동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도시농업 사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군산송기문 기자
jbskm@naver.com

全羅日報

2023년 11월 07일 화요일 007면 지역

‘도시텃밭’ 가꾸고 수확물 팜파티 생생활력

군산, 심리치료와 정서안정
총 28곳 농업 체험 환경 지원

군산시는 도시에 시민들의 심리치료와 정서 안정 지원을 위해 지난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경로당, 복지시설, 공공주택 등을 대상으로 도시텃밭 22개소를 조성하고 올해 6개소를 추가 조성해 더 많은 시민이 도심 속에서 농업을 체험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 운영하고 있다.

올해 새롭게 조성된 텃밭은 자투리 공간과 유휴부지를 소유하고 있는 모드니 직업적응 훈련센터, 아이소리 지역아동센터, 구세군 군산 목양원, 엘림통합복지센터 등 사회복지시설 4개소, 나운주공4차아파트 등 공공주거시설 1개소, 성모어린이집 등 어린이집 1개소다.

해당 텃밭에는 군산시에서 육성한 도시농업관리사를 투입해 참여 단체와 함께 공동체 텃밭을 조성하고, 모종 심기부터 마요네즈를 활용한 친환경 샐러드 만들기, 수확한 작물을



군산시가 도시에 시민들의 정서 안정 지원을 위해 도시 텃밭을 운영중이다.

활용한 팜 파티 등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군산시는 도시농업 녹색공간(텃밭) 조성 사업이 시민들이 도시농업에 참가해 정서적 안정을 누리고 수확의 기쁨을 함께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지친 일상에서 쌓인 피로감을

덜어내고 삶에 활력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미정 농촌지원과장은 “도시민들이 도심 속 텃밭 가꾸기를 통해 마음을 치유하고 더불어 농촌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일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군산=강경창기자

군산시, 도심 텃밭가꾸기사업 큰 호응

유휴지 등 22곳 도시농업 녹색공간 조성, 여가활동
교육·치유 프로그램 다채... 삶의 활력소 제공 기대

군산시가 도심 자투리땅을 도시텃밭으로 조성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시는 시민들의 심리치료와 정서 안정 지원을 위해 도시농업 녹색공간(텃밭)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6일 현재 경로당, 복지시설, 공공주택 유휴지 22곳에 도시텃밭을 만들었다.

이곳을 통해 도시농업에 참여한 시민들

은 정서적 안정을 도모하고 수확의 기쁨을 누리고 있다. 특히, 지친 일상에서 쌓인 피로감을 덜어주고 삶에 활력소가 되고 있다.

이러자 시는 향후 6곳을 추가로 개발할 계획이다.

▲사회복지시설 4개소(모드니 직업적응 훈련센터, 아이소리 지역아동센터, 구

세군 군산 목양원, 엘림통합복지센터)▲공공주택시설 1개소(나운주공4차아파트)▲어린이집 1개소(성모어린이집) 등이다.

이곳에는 군산시가 육성한 도시농업관리사가 투입돼 참여 단체와 함께 공동체 텃밭을 가꾼다.

또한, 모종 심기부터 마요네즈를 활용한 친환경샐러드 만들기, 수확한 작물을 활용한 팜파티 등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시는 또 생활 속에서 농업 활동을 통한

도시민 치유농업의 가치 확산을 위해 관내 노인복지시설에서 원예재배 키트 지원, 찾아가는 원예치료 지원사업 등 다양한 도시농업 치유프로그램을 운영중이다.

군산시 농촌지원과 김미정 과장은 “도시민들이 도심 속 텃밭 가꾸기를 통해 마음을 치유하고 농촌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며 “녹색공간 조성과 건강한 여가활동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도시농업 사업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군산=정준모 기자

전주일보

2023년 11월 07일 화요일 008면 지역

도심 속 텃밭가꾸기 통해 마음 치유 ‘좋아요’

군산시,도시농업녹색공간조성사업확대추진...심리치료·정서안정효과

군산시가 도심 자투리땅을 도시텃밭으로 조성하며, 시민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6일 군산시는 도시에 시민들의 심리치료와 정서 안정 지원을 위해 도시농업 녹색공간(텃밭) 조성사업을 확대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경로당, 복지시설, 공공주택 등을 대상으로 도시텃밭 22개소를 조성하고 올해 6개소를 추가 조성했다. 이에 따라 보다 많은 시민들이 도심 속에서 농업을 체험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했다.

도시농업 녹색공간(텃밭) 조성사업은 시민들이 도시농업에 참여해 정서적 안정을 누리고 수확의 기쁨을 함께 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지친 일상에서 쌓인 피로감을 덜어내고 삶에 활력을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올해 새롭게 조성된 텃밭은 자투리 공간 및 유휴부지를 소유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 4개소(모드니 직업적응 훈련센터, 아이소리 지역아동센터, 구세군 군산 목양원, 엘림통합복지센터), △공공주택시설 1개소(나운주공4차아파트), △어린이집 1개소(성모어린이집)다.



6일 군산시는 도시에 시민들의 심리치료와 정서 안정 지원을 위해 도시농업 녹색공간(텃밭) 조성사업을 확대 추진하고 있다. /사진=군산시

해당 텃밭에는 시에서 육성한 도시농업관리사를 투입해 참여 단체와 함께 공동체 텃밭을 조성하고 모종 심기부터 마요네즈를 활용한 친환경샐러드 만들기, 수확한 작물을 활용한 팜파티 등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김미정 농촌지원과장은 “도시민들이 도심 속 텃밭 가꾸기를 통해 마음을 치유하고 더불어 농촌에 대한 이해와 관

심을 높일 수 있길 바란다”며 “녹색공간 조성과 건강한 여가활동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도시농업 사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생활 속 농업 활동을 통한 도시민 치유농업의 가치 확산을 위해 지역내 노인복지시설에 원예재배 키트 지원, 찾아가는 원예치료 지원사업 등 다양한 도시농업 치유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박성만 기자

군산, 도시농업 녹색공간 추진 '큰 호응'

복지시설 등 대상 도시텃밭

6개소 추가 도농상생 이바지

군산시가 도심 자투리땅을 도시텃밭으로 조성하며 시민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농업기술센터는 도심에 시민들의 심리치료와 정서 안정 지원을 위해 도시농업 녹색공간(텃밭) 조성사업을 확대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경로당, 복지시설, 공공주택 등을 대상으로 도시텃밭 22개소를 조성하고 올해 6개소를 추가 조성했다.

이에 따라 보다 많은시민들이 도심 속에서 농업을 체험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했다.

도시농업 녹색공간(텃밭) 조성사업은 시민들이 도시농업에 참여해 정서적 안정을 누리고 수확의 기쁨을 함께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지친 일상에서 쌓인 피로감을 덜어내고 삶에 활력을



군산시가 도심 자투리땅을 도시텃밭으로 조성하고 있는 가운데 올해 새롭게 조성된 텃밭 중 어린이집 아이들이 모종 심기를 진행하고 있다.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올해 새롭게 조성된 텃밭은 자투리 공간 및 유휴부지를 소유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 4개소(모드니 직업적응 훈련센터, 아이소리 지역아동센터, 구세군 군산 목양원, 엘림통합복지센터) △공공주거시설 1개소(나운주공 4차아파트) △어린이집 1개소

(성모어린이집)다.

해당 텃밭에는 시에서 육성한 도시농업관리사를 투입해 참여단체와 함께 공동체 텃밭을 조성하고 모종 심기부터 마요네즈를 활용한 친환경샐러드 만들기, 수확한 작물을 활용한 팜파티 등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순정일 기자

도시농업 녹색공간 ‘텃밭’조성사업 확대

군산시, 자연친화적 도시환경 조성으로 도농상생 이바지

군산시가 도심 자투리땅을 도시텃밭으로 조성하며 시민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농업기술센터는 도심에 시민들의 심리치료와 정서 안정 지원을 위해 도시농업 녹색공간(텃밭) 조성사업을 확대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경로당, 복지시설, 공공주택 등을 대상으로 도시텃밭 22개소를 조성하고 올해 6개소를 추가 조성했다. 이에 따라 보다 많은 시민들이 도심 속에서 농업을 체험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했다.

도시농업 녹색공간(텃밭) 조성사업은 시민들이 도시농업에 참여해 정서적 안정을 누리고 수확의 기쁨을 함께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지친 일상에서 쌓인 피로감을 덜어내고 삶에 활력을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올해 새롭게 조성된 텃밭은 자투리 공간 및 유휴부지를 소유하고 있는 ▲



시는 지난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경로당, 복지시설, 공공주택 등을 대상으로 도시텃밭 22개소를 조성하고 올해 6개소를 추가 조성했다.

사회복지시설 4개소(모드니 직업적응 훈련센터, 아이소리 지역아동센터, 구세군 군산 목양원, 엘림통합복지센터), ▲공공주거시설 1개소(나운주공4차아파트), ▲어린이집 1개소(성모어린이집)다.

해당 텃밭에는 시에서 육성한 도시

농업관리사를 투입해 참여 단체와 함께 공동체 텃밭을 조성하고, 모종 심기부터 마요네즈를 활용한 친환경샐러드 만들기, 수확한 작물을 활용한 팜파티 등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군산=김낙현 기자

도심 자투리땅 '도시텃밭' 재탄생

군산시, 자연친화적 도시환경 조성 도농상생 이바지

군산시가 도심 자투리땅을 도시텃밭으로 조성하며 시민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시는 도심에 시민들의 심리 치료와 정서 안정 지원을 위해 도시농업 녹색공간 조성사업을 확대 추진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시는 지난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경로당, 복지시설, 공공주택 등을 대상으로 도시텃밭 22개소를 조성하고 올해 6개소를 추가 조성했다.

이에 따라 보다 많은 시민들이 도심 속에서 농업을 체험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했다.

도시농업 녹색공간 조성사업은 시민들이 도시농업에 참여해 정서적 안정을 누리고 수확의 기쁨을 함께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지친 일상에서 쌓인 피로감을 덜어내고 삶에 활력을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올해 새롭게 조성된 텃밭은

자투리 공간 및 유휴부지를 소유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 4개소, 공공주거시설 1개소, 어린이집 1개소다.

해당 텃밭에는 시에서 육성한 도시농업관리사를 투입해 참여 단체와 함께 공동체 텃밭을 조성하고 모종 심기부터 마요네즈를 활용한 친환경샐러드 만들기, 수확한 작물을 활용한 팜파티 등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김미정 농촌지원과장은 “앞으로도 녹색공간 조성과 건강한 여가활동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도시농업 사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생활 속 농업 활동을 통한 도시민 치유농업의 가치 확산을 위해 관내 노인복지시설에 원예재배 키트 지원, 찾아가는 원예치료 지원사업 등 다양한 도시농업 치유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군산=이찬우 기자

군산시, 도심 자투리땅 도시텃밭 조성사업 확대 추진

군산시가 도심 자투리땅을 도시텃밭으로 조성하며 시민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농업기술센터는 도심에 시민들의 심리치료와 정서 안정 지원을 위해 도시농업 녹색공간(텃밭) 조성사업을 확대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경로당, 복지시설, 공공주택 등을 대상으로 도시텃밭 22개소를 조성하고 올해 6개소를 추가 조성했다.

이에 따라 보다 많은 시민들이 도시농업에 참여해 정서적 안정을 누리며 수확의 기쁨을 함께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했다.

올해 새롭게 조성된 텃밭은 자투리 공간 및 유휴부지를 소유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 4개소, 공공주거시설 1

개소, 어린이집 1개소다.

이 텃밭들은 시에서 육성한 도시농업관리사를 투입해 모종 심기, 마요네즈 활용 친환경살충제 만들기, 수확작물 활용 팜파티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김미정 농촌지원과장은 “도시민들이 도심 속 텃밭 가꾸기를 통해 마음을 치유하고 더불어 농촌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일 수 있길 바란다”며 “녹색공간 조성과 건강한 여가활동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도시농업 사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관내 노인복지시설에 원예재배 키트 지원, 찾아가는 원예치료 지원사업 등 다양한 도시농업 치유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군산=김종준기자

군산시 도시농업 녹색공간 조성사업 확대 추진

군산시가 도심 자투리땅을 도시텃밭으로 조성하며 시민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농업기술센터는 도심에 시민들의 심리치료와 정서 안정 지원을 위해 도시농업 녹색공간(텃밭) 조성사업을 확대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경로당, 복지시설, 공공주택 등을 대상으로 도시텃밭 22개소를 조성하고 올해 6개소를 추가 조성했다. 이에 따라 보다 많은시민들이 도심 속에서 농업을 체험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했다.

도시농업 녹색공간(텃밭) 조성사업은 시민들이 도시농업에 참여해 정서적 안정을 누리고 수확의 기쁨을 함께 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지친 일상에

서 쌓인 피로감을 덜어내고 삶에 활력을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올해 새롭게 조성된 텃밭은 자투리 공간 및 유휴부지를 소유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 4개소(모드니 직업적응 훈련센터, 아이소리 지역아동센터, 구세군 군산 목양원, 엘림통합복지센터), △공공주거시설 1개소(나운주공4차아파트), △어린이집 1개소(성모어린이집)다.

해당 텃밭에는 시에서 육성한 도시농업관리사를 투입해 참여 단체와 함께 공동체 텃밭을 조성하고, 모종 심기부터 마요네즈를 활용한 친환경샐러드 만들기, 수확한 작물을 활용한 퓌파티 등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군산=김판곤 기자